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계획 개선

심사위원회 진행과정 SNS 생중계, 심사평가방식 투표제 운영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건축분야 전문가 20명 공개 모집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개선 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및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초 비공개로 운영됐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진행 과정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해 심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채점제 원칙이었던 설계공모 심사평가 방식이 투표제 원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선자, 차순위 등 모두 심사위원 토론을 거쳐 투표제로 운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설계공모, 지명공모 등 설계공모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당선작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설계공모 전반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건축분야 전문가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광·전남권 소재의 기관·대학·기업 등의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

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구조·시공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구조, 시공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설계공모 방식 및 지침(안) 검토, 심사위원 추천, 법령 위반사항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19일까지 이메일(zhzhdk92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석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설계공모 진행 및 공모방식을 다양화해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전남,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

국제화 비전 등 온오프 행사 다채

전남도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남도음식의 국제화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5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17일까지 이어진다.

15일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49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는 남도추수한마당 주제공연, 남도음식의 전통을 잇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남도음식명인 9명의 공로패 수여식, 김영록 도지사와 22개 시장 군수가 함께하는 축하영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화 비전 선포식도 열린다.

1994년부터 올해까지 27년째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축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이번 행사에서 남도음식의 유서 깊은 역사를 잇고 남도

음식을 세계에 알려 국가브랜드로 구축하려는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관은 시군 음식관과 명인관, 남도음식 영상관, 여수관 등 남도의 맛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남도음식을 담은 맛깔난 영상으로 꾸며져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남도음식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도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는 특별히 유튜브 채널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를 개설했다.

전남 22개 시군 대표음식과 명인 음식 등 남도의 멋스러움과 여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물 전 세계로 송출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음식문화의 중심인 남도음식은 예로부터 향토의 맛을 간직한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유명하다"며 "앞으로 남도음식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해 그 가치를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전남 명품 천일염 가치·우수성 알린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4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야외 광장에서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2021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기존 전시·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찾아가는 소금박람회'로 열린다.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과 천일염의 정보와 역사를 알아보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남도 제공

김

전복

대파

올금

##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